

베트남 특별입국 절차

특별 입국 허가

1

소요기간 국가별 상이

- ▶ 비자 발급 절차 대행
- ▶ 주 관 | 대한상공회의소

| 출장일정 / 인원확인

COVID-19 검사

2

소요기간 0.5일

- ▶ 유관기관 | 국가지정 병원 | 자체 건강 모니터링 (발열 여부 등)
- ▶ 검사 장소 집결 → COVID-19 진단 검사 수검 → 검사결과 확인

출국 대기

3

소요기간 2일

- ▶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전
공항 인근 호텔 격리

| 자체 건강 모니터링 (발열 여부 등)
※ 검사결과 확인시 까지

출국

4

- ▶ 탑승 수속 | 탑승 수속 전용 카운터
- ▶ 수령 물품 | 코로나19 음성 확인서, 수하물 태그, 세정제, 위생장갑, 비자발급 신청양식 등
- ▶ 항공편 |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, 베트남항공

현지 공항 도착

5

- ▶ 베트남 지방성 공항 → 공항내 이동용 셔틀버스 탑승
- ▶ 모든 입국 절차는 공항 외부에서 별도로 진행 / 입국신고와 발열 체크
- ▶ 비자는 도착비자로 도착지 공항에서 발급수령 예정 / 개인짐 수령 및 적재

입국자 격리

6

소요기간 최대 14일

- ▶ 격리 호텔 | 추후 공지 | 자체 건강 모니터링 (발열 여부 등)
*공항에서 호텔까지 버스로 1시간 10분 내외 소요
- ▶ 베트남 방역당국의 통제에 적극 협조 필요
- ▶ 격리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호텔 외부로 출입 불가

격리 해제 후 이동

7

- ▶ 각 회사의 개별 차량으로 개별 이동 | 이동 동선 확인 (출장 종료시 까지)
- ▶ 무료 셔틀 | 추후 공지
- ▶ 호텔 → 인근 공항 단체버스 운영 예정

귀국

8

- ▶ 전세기 탑승 후 인천 이동 | 탑승 수속 체크인
*인천공항 이동편 미리 확인 요망

입국 서류 및 문의처



입국 절차 필요 서류

- 1** 여권 (유효기간 6개월 이상)
- 2** 비자발급 신청서 (NA1양식)
- 현장 작성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전 배포한 양식에 개별 작성하여 지참 요망
- 3** 여권사진 2매 (4×6사이즈)
- 4** 영문코로나19 음성확인서 (발급일 기준 출국 72시간 전)
- 5** 비자발급비 → 3개월 단수 비자 : USD25 / 복수 비자 발급 : USD50
- 개별적으로 현금 준비(거스름돈 없음)
- 6** 검역신고서 (승인코드 캡처화면)
- 도착 후 작성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, 웹사이트 통해 사전에 작성

* 기존 비자 및 거주증 보유자는 여권상의 비자 및 거주증 지참

* 주의사항 입국 전까지 기내 이동을 최소화하여 주시고, 주변 탑승객과 최소한의 접촉 부탁드립니다.
아울러 기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



문의처

대한상의 베트남 특별입국 사무국
tel. 02-6050-3552, 3568, 3562 E-mail. region@korcham.net

수화물 규정 해외 마스크 반출 및 유의사항



수화물 규정

기내반입 휴대 수화물	1인당 10kg 수화물 1개 허용(삼변의 합 115cm 이하, 손잡이·바퀴 포함) - 컴퓨터, 서류가방, 핸드백 중1개 추가 가능
유의 사항	액체류 : 용기당100ml이하, 총1L 마스크 : 최대 90개까지 허용
위탁 수화물	1인당 23KG 수화물 2개 허용 (가로+세로+높이=158cm이하) * 2pcs 초과시 개인지불(현장 카운터에서 카드결제 가능)
유의 사항	초과 수화물 위탁 불가(초과 요금 지불 관계없이 제한) 전자제품, 서류, 의약품, 화폐, 보석, 귀중품 위탁 불가 위탁 수화물 내 마스크 소지 불가

해외 마스크 반출 및 유의사항

내국인 출국자의 경우,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여행 기간을 고려하여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 **최대 90개까지 허용** (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하여 반출 가능)

▶ 증빙자료 : 비자, 거주증, 명함(해외지사 근무 확인) 등 (중 택1)

* 필요시, 대한상의회에서 인천세관에 협조 공문 송부

반드시 **휴대 수하물**로 기내 반입 (※위탁수하물 절대 불가)

▶ 위탁 수하물로 부칠 시 베트남 현지 도착 후 반출 불가

기업인 베트남 특별입국 관련 언론보도



기업인 베트남 특별입국 지원(4/29)

2020. 4. 28.

격리 마친 한국 기업인들, 전원 베트남 입국

주베트남 대한상의회는 3월부터 한국대사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코트라·KOTRA)·코참 등 현지 기관들과 함께 베트남 정부 설득에 나섰다. 이후 한국 외교부와 산업자원부도 이들을 원거리 지원사격하며 설득 작업에 동참했다. 베트남 정부가 이날까지 개별 기업군의 공동입국을 허용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.

연합뉴스 하노이=정재호 특파원



꽉 막힌 베트남 하늘길, 대한상의회가 열었다

2020. 7. 21.

기업인 4천여명 특별입국 추진...코로나 이후 단일국가 최대 규모

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베트남에 한국 기업인과 가족 약 4000명이 대규모로 입국한다. 코로나19 확산 이후 단일 국가 최대 규모다. 대한상공회의소가 입국 협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.

대한상의회는 산업부·외교부·복지부·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입국 협의, 비자 발급, 항공편 및 격리 호텔 섭외 등 출장 전 과정을 진행했다.

국민일보=강주화 기자

